

노령연금 소득 산정...혜택은 커녕 손해

기초수급자 생계비 되레 줄었다

광주 9,442명·전남 8만4천여명 피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김모(여·71·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1월 구청에서 주는 생계비를 받고 깜짝 놀랐다. 급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됐기 때문에 생계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대로 줄어든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까지 38만7천611원의 최저생계비 외에 5만원의 경로연금, 1만4천250원의 노인교통수당 등 모두 45만1천861원을 매달 받아왔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1월 1일부터 받은 돈은 모두 합쳐 43만7천611원. 지난해보다 1만4천250원이 되레 줄어들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일부를 '소득'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있는 자'로 분류돼 생계비 지원액이 줄면서 총수령액이 감소하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는 광주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만3천396명 가운데 9천442명에 달한다. 전남에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6만8천698명 가운데 절반인 8만4천804명의 생계비가 오려려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생계비 보전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법을 도입한 탓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반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반 저소득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생계비가 큰폭으로 증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소득 연금 대상자들은 종전에 교통수당(월1만200원)만을 받았으나,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이후 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9천800원에서 최고 7만3천800원까지 연금이 늘었다.

김씨는 "동사무소에서 기초노령연금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되레 손해를 보게됐다"며 "금전적 어려움이 당하게 된 만큼 당국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는 물론 일선 시·군·구에서는 심심찮게 걸려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항의전화에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령연금제 시행에 따라 손해를 보게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승례문 방화 모방 범죄?

여수서 수령 600년 보호수 불타

여수시에서 수령이 600년 된 보호수가 불에 타 경찰이 승례문 방화에 따른 모방 범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여수경찰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10분께 여수시 오립동 가로변에 있는 600년 된 느티나무(높이 27m·둘레 6.5m·사진) 일부가 불에 타 훼손됐다.

지난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된 이 느티나무는 썩은 부분을 드러내는 외과수술로 인해 내부가 우레탄 등으로 채워져 있던 상태였으며, 이날 화재로 나무 안쪽 가로 2.5m, 세로 3m 가량이 불에 탔다.

여수소방서 박민수(44) 소방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며 나무에서

는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나무 주변에 과일과 촛불을 켜 흔적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무속인이 주술행위를 위해 켜놓은 촛불이 나무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승례문 방화에 따른 모방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431) 김중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병민 청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4·9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전남경찰청도 이날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설한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문지마 폭행’

30대 남성, 20대 여성에 이유없이 흥기 휘둘러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에게 무던 이유없이 흥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2일 오전 8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S공원 인근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전모(여·20·광산구 월곡동)씨의 목과 팔을 흥기로 찌른 정모(32·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새벽까지 술

을 마신 후 집 근처를 배회하던 중 노상에 떨어져 있던 흥기를 집어 지나가던 전씨를 찌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가해자인 정씨와 피해자인 전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정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광산구 월곡지구대로 자수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흥기를 주웠을 때 전씨가 옆에 지나가기에 아무 생각없이 찌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다중의 건축·산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만행. 서울특별시 : 02) 3445-0943.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사우나 화재 긴급 대피 소동

○광주의 한 여자 목욕탕에서 불이 나 손님 30여명이 속속 차림으로 긴급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25분께 북구 풍향동 S목욕탕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불이나 한층 막 16㎡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2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게 의해 10여분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2층 여탕과 3층 남탕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던 남녀 30여명이 간신히 속옷만 챙겨 입고 주요 부위만 가린채 황급히 1층으로 대피.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층막에 설치된 보조 열기구에서 나온 복사열이 한층막 마감재로 사용된 나무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확인을 조사 중.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흥터 만들기’ 위험한 아이들

광주지역 일부 초·중생 유행 ‘주’

최근 광주지역 일부 초·중학생들 사이에 자신의 신체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는 ‘흥터 만들기’ 유행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학부모의 강력한 지도가 요구된다. ‘흥터 만들기’는 청소년들이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이나 팔, 손등, 목 등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는 것이다.

김모(15·북구 용봉동)군은 최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흥터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군은 며칠 뒤 ‘안 아프게 흥터 만들 수 있다’는 답글을 받았다. 이 방법대로 왼쪽 손등에 문구용 자신의 여자 친구 이름 이니셜을 새겨 넣은 김군은 “고의로 흥터를 내는 것이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초·중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좋아하는 여학생의 이름이나 상처 등을 내기 위해 이를 새기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포털사이트에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가 학생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자기 과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심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tjdwns 3000tm’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학생은 ‘일본 무사처럼 강한 사

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팔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십자 흥터를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며칠 전 손등 부위에 문구용 칼로 흥터를 만들었는데, 쉽게 지워졌어요. 안 아프고 쉽게 상처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남겼다.

광주 아동학대에방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행위는 부모 영향이나 또래 관계 등 복합적 요인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심리적 방어요인으로 보인다”며 “부모님들이 자녀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유희주점 ‘재떨이 폭행’

조양은씨 1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를 판사는 유희주점에 동석한 지인에게 폭력을 휘둘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복 조양은(5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05년 10월 초 서울역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희주점에서 말대꾸를 한다며 재떨이로 황모(45)씨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밟는 등 3차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작년 5월 구속기소돼 두 달 여만인 7월에 보석금 1천만원을 내고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연합뉴스

광주 전문메디비노기과 의원 www.vtcinfo.co.kr 대표이사/원장: 조영희. 발기불능수술. 안동복용, 주사요법, 한의사본. 상담전화: (062) 233-5119. 255 상암동 2층 201호 (안동) 010-9222-3166. 2008.02.14.08:45:44

Advertisement for (주) 조이트레블. Real estate listings with prices: 310,000, 429,000, 439,000, 499,000, 279,000.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Listings include: 1,120,000, 1,170,000, 1,400,000. Includes text: '귀하의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Listings include: 599,000, 649,000, 245,000, 259,000, 350,000.